EASTERN
ECONOMIC
FORUM

주간 다이제스트

# 극동 경제 발전

2018.9.8

## 동방경제포럼 소식

**2018-동방경제포럼에서 세계경제발전 전망이 발표된다.** '지식 에너지' 프로그램 일환으로 동방경제포럼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된 강당에서 글로벌 에너지 Award 국제심사위원이자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 세계적 전문가인 정래권 명예 교수가 '2030년까지의 세계 에너지 발전 전망'에 대한 강연을 한다. (석유가스 Territory)

**러시아의 생물종 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경매 행사가 열린다.** 이전처럼 극동 지역 주지사들, 극동의 특별보호지역, 국립공원, 비영리단체 및 러시아 유명 문화 예술인들 또는 운동선수들이 경매품을 내놓는다. (리아 노보스티)

**동방경제포럼 계기로 극동의 바다양식 발전을 위한 특별 세션이 열린다.** '바다양식: 새로운 산업의 첫걸음'세션에는 주요 정부감독기관 대표들이 참석한다. (러시아의 양식)

**극동지역과 쿠즈바스(케메로보주)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기습 질의행사가 프리젠테이션 존에서 열린다.** 지방정부 수반들이 지역의 주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, 스탠드업 포맷으로 투자 사업 설명회도 열린다. (타스통신)

**동방경제포럼 일환으로 SU-35S 수호이 전투기 에어쇼가 펼쳐진다.** 관객들은 전투기 단독 비행과 두 대가 동시에 펼치는 에어쇼를 볼 수 있으며, 전투기 한

대는 고난도의 비행쇼를 펼칠 것이다. (PrimaMedia).

**한국의 KT 주식회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'스마트 시티'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.** '극동의 거리' 전시회에서 프로젝트의 비주얼 프리젠테이션이 발표될 예정이다. 이외에도 연해주 정부는 KT와 협력 MOU를 체결한다. (Primorskiy.ru)

**블라디보스토크의 엘레나 섬을 잇는 교량 건설 사업에는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.** 사업 1단계에는 운하를 가로질러 엘레나 섬을 잇는 5.5km 길이의 도로와 2개의 교량이 만들어 질 것이다. 이 건설사업의 총 비용은 190억 루블로 추정된다. (Primpress.ru)

**동방경제포럼 조직사 – 'RosCongress'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.**

'RosCongress'재단은 컨벤션,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. 재단은 행사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 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, 정보,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글

www.roscongress.org